

중단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잇속에 따른 이 합집산인가.

조계종 중앙총회의 최대 계파이자 친(親) 법장 스님계열인 원용회를 비롯해 일여회, 보림회, 무소속 총회의원들이 기존 계파를 해체하거나 이탈해 일승회

를 창립했다. 각 계파 총회의원 33명은 8월 25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일승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발기인대회에서 회장에는 종광스님이, 부회장은 자승, 선광, 향적 스님, 간사에는 장적(재정), 광조(총무), 원담(운영) 스님이 선출됐다. 또 법등, 정휴, 청화, 장윤, 도후, 지홍(낙산사), 동광, 혜승 스님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조계종이 지난 8월 20일 민주당 불자회 의원들에게 중단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26일에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불자회(회장 하순봉 의원) 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정책과제와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성관(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미산(사회부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가 참석했다. 한나라당 불자회에서는 하순봉, 고홍길, 권을 의원 등과 정병국 대표

특보 등 모두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북한산 관동노선 폐지문제 △문화관광부 종무실 통폐합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국공립 박물관 소장 중단 소수 불교문화재 반환 △중책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문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 불자

문화재청 승격 이번 회기처리 어렵다 북한산도로문제 청와대가 해결해야

법장 스님, 한나라 불자의원들과 현안 논의

회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북한산 문제와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대해서는 민주당 불자의원들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강한 톤으로 불교계 입장을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장스님은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문화관련 행정부서의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차관청인데 비해 문화재청이 1급 행정청인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이 빠른 시일 내에 차관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고스님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동노선의 문제점과 불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뒤 "관동노선 폐지는 대통령의 불교계 제1공약이

자 당선 후 불자들과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고홍길 의원은 "문화재청 승격 문제는 이미 문화재청 내 1국2과 신설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는 처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의원은 "종무실 폐지 문제는 아직 문광위가 정부로부터 보

고받은 사항이 없다"면서도 "보고되는 즉시 종교계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관동노선 폐지문제에 대해 하순봉 의원은 "오찬회동 전에 건교부 담당실무자들을 만났는데 실무자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더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전사법 개정안은 성안돼 있지만 소급입법 논란이 있어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 의원은 예산 확충과 관련해 "중책사업 지원 등의 예산 확충문제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새해부터는 신설했을 수 없지만 향후 간 조정을 통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원용·일여회 등 계파 통합... 일승회 창립

조계종 중앙총회 판도 전환점

이에 따라 일승회에는 원용, 일여, 무소속 등 '여당' 격인 계파와 '야당' 격인 보림회의 일부 총회의원들이 가세함으로써 중앙총회의 세력 구조가 크게 뒤바뀌게 됐다. 계파별 일승회 참여인원은 원용 21, 일여 9, 무소속 6, 보림회 5명 등 모두 41명이다. 이로써 일승회는 종회내 과반수(41명)를 차지하게 됐으며, 종회내 계파는 일승회, 보림회, 금강회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번 계파통합을 놓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다. 중앙총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과, 이해관계에 따른 '헤쳐모여'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엇갈리는 상태다.

"새모습 기대" "헤쳐모여 불과" 시각 엇갈려

"법장 스님 중단 운영 가속도"엔 대부분 공감

일승회 회장 종광스님은 창립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교집단으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고 건전한 정책을 생산하고, 총무원 집행부와 협력해 중단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일승회 창립의 근본 취지"라며 "다수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모든 문제

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계파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종광스님이 밝힌 것처럼, 일승회 스스로가 '다수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종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속과 같은 '철세 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들이 헤쳐모여를 반복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일승회의 한 총회의원은 "통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명하복식의 조직형태도

그대로이고, 건강한 목소리를 전달할 장구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통합 이념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세블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말은 '세력'의 중심에 서겠다는 총회의원들이 이념에 관계없이 '철세'로 전락하고, 따라서 총회의 기능과 총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갯밥'에 더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승회 창립이 법장스님의 중단 운영에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총회의식의 과반수를 확보한데다, '야당' 격인 보림회마저도 세력 축소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단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장스님은 8월 26일 한나라당 불자의원 초청 간담회 직후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계파 대표자를 만나 중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단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일승회 창립으로 중앙총회는 전환점에 서게 됐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일승회가 가지게 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 총회의원 스님이 텅빈 총회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계종 임시총회 '유회'

일승회·보림회 등 사전 불참쪽으로 가닥

8월27일 열리기로 돼 있던 조계종 제159회 임시중앙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영답스님 등 33명 총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이번 임시중앙총회는 총회의장 지하스님, 총회부회장 법조스님, 총회사무처장 상운스님과 현음, 지홍(조계사) 스님 등 5명의 총회의원만이 참석함에 따라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는 영답스님 등이 총회소집을 요청하면서 안전으로 요구했던 법규위원 선출 취소 및 중재제 결의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사실 이번 임시총회의 자동유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창립된 일승회가 총회를 유회시키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었던 데다,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영답스님이 속한 계파인 보림회 내에서조차 이번 소집 요구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불참측 쪽으로 방향을 정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를 각 계파간의 이해득실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명우 기자

경불련의 앞날은

내용을 겪고 있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의 미래에 대해 교계 내부의 격정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 중 첫번째는 전(前) 임원진 중 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몇몇 인사들의 사퇴 여부. 단위 사업장 실무자들은 K 전(前)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경불련뿐 아니라 법안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완전한 손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전 임원진측은 K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일부 임원 사퇴 요구·생협 문제로 내홍 겪어

9월초 차기 실무자와의 대화가 해결 분수령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직을 사퇴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두번째 문제는 경불련에서 운영했던 생협 문제. 실무자들은 생협이 시작부터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고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표 등록도 전 임원진 중 한 사람으로 돼 있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 임원진측은 생협은 위

크습 토론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집행한 사안이자 실무자들도 생협 개장식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손실금은 매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번째는 경불련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실무자들은 소수자 인권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 임원진들은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K 전 위원장이 귀국하면서 전 임원진측은 단위 사업장을 공신력 있는 다른 단체에 기증하거나 사업장 중 일부를 실무자에게 완전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측은 8월 29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를 열고, 총회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거론한 뒤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

경불련 문제는 정교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등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9월 초 전 임원진측이 입장을 정리한 다음 실무자측과 대화 또는 중재하는 시점이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차정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제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입성 배려

영산작법 전통불교의식 전문교육

중생들에게 불법을 홍포하고 제도함에 있어 여러 방편법이 있었으나 범패(영산작법)는 여래를 찬탄하고 그 공덕을 축원하여 인천의 무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식을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행하므로 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환희심을 내어 굳건한 신심으로 기도 정진할 수 있습니다.

급변 영산회 주최로 전통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전북지방 문화재 18호 봉서사 영산작법 인간 문화재 일암 큰스님과 범음대학교 교수 심만춘스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 하였으니 무무 동참바랍니다.

-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번지 (운천사)
- ◆ 일 시 : 불기 2546년 음 7월 17일 (양 9월 13일) 오전 10시 - 음 7월 23일(양 9월 19일)까지 (일주일간)
- ◆ 교육내용 : 불공의식, 다비작법, 시련, 대령, 관육, 시식, 신중작법,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민바라 및 천수바라, 사다리나
- ◆ 교 육 비 : 10만원(교재포함) [농협온라인 175401-52-044692 예금주 : 이기행]
-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세면도구, 기타
- ◆ 주 최 : 영산회
- ◆ 후 원 : 태고종 광주·전남 중무원
- ◆ 협 찬 : 광주불교방송국,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 ◆ 접수 및 문의전화 : 062-375-1820, 011-604-8902, 062-222-4133
016-651-6006 팩스 : 062-381-0944

교육 일정 시간표

날 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9월 13일 (토)	오 전 10시	입소식, 불교, 정심공양	
	오 후 2-5시	전체 교육내용강의	영산회 회장
9월 14일 (일)	오 전 09-12시	의식강의	심만춘 스님
	오 후 2-5시	전문교육	영산회 회원스님
9월 15일 (월)	오 전 09-12시	의식강의	심만춘 스님
	오 후 2-5시	전문교육	영산회 회원스님
9월 16일 (화)	오 전 09-12시	영산작법(안채비)	일암스님
	오 후 2-5시	전문교육	영산회 회원스님
9월 17일 (수)	오 전 09-12시	영산작법	일암스님
	오 후 2-5시	전문교육	영산회 회원스님
9월 18일 (목)	오 전 09-12시	영산작법	일암스님
	오 후 2-5시	전문교육	영산회 회원스님
9월 19일 (금)	오 전 09-12시	전과정 예·복습 점검	영산회 회장
	오 후 2-5시	회향(수료증 수여)	